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3
Mar. 2015
Vol.3 No.3

- 전교인 기도회
- 주안에삶 인도자감사회
- 교구 / 사역국 탐방
- 교육부 / 칼럼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 전교인 기도회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악을 이기는 병기

주안예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도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왔다고 봅니다. 특별히 주안예교회에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특히 중보기도 팀은 매 예배시간마다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는 성공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이들 중보기도 팀의 기도의 힘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기도시간에 함께 모이는 수는 열 명 전후의 적은 수이지만 이들의 기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때로는 울음으로 때로는 환희의 기쁨으로 하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준비하신 복과 은혜로 응답해줍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기도시간에 들어와 보시면 압니다. 초대 교회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행2:1-4)’한 사건이 매 시간 중보기도 팀이 기도할 때마다 재현되고 있으니까요. 기도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분위기에 둘러싸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드리는 매 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

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하늘의 신령한 기운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도 성령님께서 완전히 인도해주시어서 마음 맡아서부터 혀의 움직임까지 주장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기도, 힘이 넘치는 기도, 하늘 문을 활짝 여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애물을 없애는 기도,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중보기도 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매 순간 이어집니다. 이렇게 준비된 기도의 용사들이 지경을 넓혔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영성 집회 뒤에 전 교우들과 함께 특별 중보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날에 벨리와 세리토스 채플에서 각각 백 명이 넘는 교우들이 모여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이성우 전도사님이 이끄시는 찬양팀의 찬양으로 각 교우들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고 그리고 주안예교회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며 시작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말도 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힘찬 찬양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주안예교회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벨리 채플은 박정환 목사님이, 세리토스 채플은 이현욱 목사님이 각각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작은 전 교우가 함께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주안예교회가 세워지고 1년 반 만에 천 명이 훨씬 넘어 급성장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인지 사탄을 비롯한 악의 세력들의 방해가 거셉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이 아닌 악의에 가득 찬 기사로 교회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타일러도 보고 경고도 해보았지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범에 호소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안예교회 양 채플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교회 협의회 회장까지 맡아 동분서주 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세상의 시기와 공격이 만만치 않아 목사님이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이를 알고 교우들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 벨리 채플에서는 목사님을 단 위에 모시고 전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리토스 채플에서는 목사님께서 국가 조찬 기도회 참석 차 고국으로 출타 중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만 기도했습니다. 최혁 목사님! 힘내세요. 중보기도 팀은 물론이고 전 교인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져 그룹별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교역자들을 위한 기도, 사역국과 청년부를 위한 기도, 교육부를 위한 기도, 그리고 개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는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자기가 속한 채플을 위한 기도를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다른 채플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역시 기도의 백미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 내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과 주안에 교회 구석구석을 가득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도로 전진하고 기도로 싸우고 기도로 후원하는 주안에 교회! 기도하는 주안에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지켜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 조성운 기자 |

<1면서 계속>

환자가 깨닫음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하시며 분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유희은 말씀의 선포로, 시련은 인내함으로, 테스트는 말씀에 대한 순

중으로 이기십시오. 시험을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되어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성장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 정리: 조성운 기자 |

■ 주안에 라이프



2기 프로그램 대폭 업그레이드, 봉사팀 ‘웰빙 서비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해 주안에 라이프 1기를 잘 마치고 2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벨리에서 유명한 성인 크라스가 됨을 감사합니다. 훌륭한 선생님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건강을 신경 쓴 웰빙 음식도 한 몫을 했습니다.

올해 주안에 라이프를 시작 하면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좋은 프로그램과 교수진이라는 소문이 나서 더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주안에 라이프를 위해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 후부터 이케이시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수진과 주방팀들이 각자 맡은 곳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주안에 라이프의 하루

일정을 짜고 섬기기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아침에 간단한 커피와 빵이 제공되고 은혜로운 예배로부터 공부는 시작되고 1교시와 2교시로 두가지 크라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빅, 기타, 영어, 행복댄스, 골프 크리닉, Q.T, 아이폰드/스마트폰 사용법, 뜨개질, 베드민턴 크라스 등등... 각자 원하는 과정을 2크라스 선택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준비를 했기에 유익한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점심도 웰빙을 모토로 최상의 수준을 자랑하

며 최고의 서비스로 준비해 드립니다. 15명의 봉사팀이 정성과 사랑을 담아 만든 음식은 최상이라 할 만큼 자부할 수 있습니다. 벌써 벨리에서 입소문을 통해서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안에 라이프는 우리 교회의 자랑이며 벨리 지역 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봉사 단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안에 라이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주안에 라이프 과정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덕이라 믿습니다. | 노현숙 집사 |

■ 주안에살 인도자 감사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지난 3월 28일(토요일) 벨리 채플 101호실에서 교역자와 주안에생명 훈련 인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2월 첫 주부터 6주간에 걸쳐 진행했던 훈련 인도자 감사회를 가졌다.

감사회는 이성우 전도사의 인도로 찬양과 통성기도, 한대일 전도사의 대표기도, 이정미 집사의 현황보고, 인도자들의 간증, 담임목사의 격려와 감사말씀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정미 집사는 주안에생명은 우리교회의 4대 목회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훈련을 계획,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훈련진행 현황은 세리토스 6기, 벨리 4기까지 총 42주 진행되었다. 1년 9개월 간 세리토스는 총 186명(1권 106명, 2권 55명, 3권 25명), 벨리 176명(1기 95명, 2기 49명, 3기 32명)이 각각 이수했고, 인도자는 37명이 섬겼다고 소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교재에 만족한다’,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각각 97%, 92%였고, 훈련 진행내용에 관해서는 ‘속제가 도움이 되었다’, ‘말씀 읽기, 거룩한 독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각각 90%, 89%의 응답이 있



었다고 소개했다.

인도자들은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서가 있었다.

김윤영 간사는 “6개 청년반 모두 한마음이 되었음에 감사한다. 개인적으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뻐다.” 양국민 전도사는 “주안에살 훈련이 1년 반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자와 훈련생의 삶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안에교회에 계속될 훈련들을 통해 교회 안에 건강한 문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안에훈련이 거듭될 때마다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을 통해 교구와 구역이 활성화되며, 그리

스도인으로서의 치열한 영적전쟁 속에서의 승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훈련생들의 은혜와 변화에 감사하고, 지난 훈련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 자리였습니다. 훈련생 모두가 말씀과 동행하는 4, 5, 6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혁 목사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교회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평신도사역훈련원이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가 말씀을 훈련 받고, 훈련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주안에교회 평신도 사역훈련원의 사역이 막중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헌신적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맡은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 평신도국원들과 인도자로 섬기신 모든 분들의 헌신들이 모여 우리 주안에교회가 말씀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서 가게 될 것이다. | 김영일 기자 |

■ 새가족국(밸리)

‘섬김과 배려’ 주안예교회 방문자들의 도우미



새가족국은 주안예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안내하고 정보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등록하고 정착하도록 도우며 바나바사역을 중심으로 예배안내, 새가족교육, 주안에 만남 등을 봉사하는 사역국이다. 새가족이 처음 방문하는 어색함과 낯설음에서 해방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때 항상 긴장하며 온유와 겸손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새가족국은 주안예교회 얼굴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부드러운 모습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듯 매주마다 주안예교회의 자긍심과 영광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새가족국원들을 소개한다.

팀장으로 김선자 권사를 비롯하여 안유은, 김

경희 권사, 김규실, 이사라, 공수옥 집사가 바나바로 맹활약 중이다. 특히 이사라 집사는 마치 교회봉사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본인의 모든 것을 드려 오로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다. 김선자 권사의 조용하고 진중한 태도는 데스크 업무에 아주 적임자로서 바나바팀을 소리없이 리드함으로 조직전체의 안정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새가족실에 온 방문자들을 화사한 웃음과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접대하는 총무팀으로는 이성근 팀장과 홍영주 집사가 봉사하고 있다.

2014년 바나바팀장으로 봉사하였고 동반자인 이방걸 장로와 함께 새가족국이 정상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온몸으로 헌신한 이혜령 권사는 새가족국의 어려운 제반의 일들을 해결해주는 도우미이며 필요할 땐 바나바로 봉사하는 일도 마다않는 영원한 새가족국원이다.

부원들의 섬기는 각오를 김선자 권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새가족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안유은 권사는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김규실 집사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대로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김경희 권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공수옥 집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섬기며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겠습니다.” 이혜령 권사는 “내가족과 같이 돌보며 섬기겠습니다.” 이사라 집사는 “다음 주가 기다려짐이 있는 심정으로 섬기겠습니다.” 총무로 봉사하는 이성근 집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마음과 그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서”라고 하였다. 김제니 권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에 한 영혼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섬기며 봉사한다”고 말하였다.

새가족국장 홍영표 집사는 “봉사하는 모든 분들의 자발적인 도움과 헌신으로 터를 닦아가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새가족이면 반드시 받게 되어있는 새가족교육은 한 달에 세번 실시하며 구원, 말씀, 기도의 3가지 주제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교육 훈련은 이방걸 장로가 담당하고 있다.

새가족국원들의 섬김이 우리교회를 방문하는 새가족들의 교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교회성장도 더불어 더 큰 역할이 기대된다.

| 공태용 기자 |

■ 3교구(밸리)

‘은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젊은 열정 넘쳐요

밸리 3교구는 13가정에 자녀 포함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 성도 비율이 높고 영유아부터 중등부에 이르는 자녀들까지 끈끈한 하나님의 권속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나는 행복한 교구이다.

교구장 안동윤 집사는 “젊은 패기를 바탕으로 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아가겠습니다.” 안유은 권사는 “교구원을 너무 사랑하며 격려하고 문쳐서 늘 한 가정같은 마음으로 섬기며 그런 교구원들에게 도전을 받으며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제 1구역장인 스티브윤 집사는 “성령 충만한 힘으로 교제하며 화목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가족같이 구역을 섬기겠다”고하고, 전해숙 집사는 “고등부총무로 봉사하며 주님의 혈육과도 같이 하나가 되어 있는 교구가 너무 좋다”고 하였다.



제 2구역장인 강윤식 집사는 “구역모임을 마치면 곧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혜원 집사는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3교구는 늘 즐겁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

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133:13) 교구원 전체가 기쁘게 모여 서로의 음식들을 나누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며,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라기 위하여 그리고 삶 속에서 나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대부분의 교구원이 주안의 빛에 등록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교구의 지체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여러 부서에서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여 무성한 가지가 되며 변화된 지체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교회의 미래에 중심으로 헌신할 일꾼들을 배출하며 주의 복음의 도구로 쓰여져 나가는 교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 공태용 기자 |

■ EIKON & AWANA

TV · 인터넷 · 잠시 잊고... 주안에 군병 훈련을

이콘의 또다른 학기가 시작되었다.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2교시 수업이 진행된다. 45명의 학생이 등록해 10개의 수업이 희망하는 학생대로 접수를 받았다. 학생이 많은 클래스는 열명 가까이 되는가 하면 적은 반은 독선생님을 두는 특혜를 누리기도 한다.

베드민턴(크리스 매기), 축구(솔로몬강,) 키보드(이정의), 플룻(김신의), 보컬(최다니엘), 크래프트(박진영), 댄스(서정아), 아트(김민재), 기타(샘 김), 수학(폴박)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재능기부를 하는 교사들의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아워나에 봉사하는 교사들의 이름이 역시 포함되어 있으며 교역자들의 이름도 찾아볼 수 있다. 김신의, 김민재는 EM소속으로 이미 여러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크리스 매기, 폴박 집사 역시 Eikon처음부터 지극정 함께하고 있다.

컴퓨터나 TV만 있으면 하루가 아니라 열흘이라도 군소리없이 시간을 보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마음과 시간을 내주면 아이들의 추억이 깊어지고 함께 하는 기쁨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같은 세대를 보자면 항상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은 이 아이들의 유소년기가 너무도 매마르고 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더욱 무미건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에 전화를 걸면 자동응답기가 용무를 묻고 은행은 은행원이 아닌 ATM이나 전화로 용무를 보게하고 마켓도 self check out으로 직접 계산을 한다. 컴퓨터 게임을 하며

크는 아이들에게는 사람과 눈을 마주칠 이유가 없는 이런 시스템이 아마 더 편할지 모른다. 예배도 집에서 혼자 TV나 인터넷으로 보는 이 세대가 옛날 사람냄새나는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최소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만이라도...



어워나의 두번째 학기가 시작되었다. 이전과 동일하게 세리토스에서는 목요일, 벨리에서는 금요일 영성예배와 같은 시간(7:45pm)에 진행된다. 지난 학기에 등록했던 아이들이 거의 다 등록, 세리토스 30명, 벨리 40명

이 참여하고 있다.

세리토스 채플은 이정아 사모, 류명수, 변로빈 집사가 교사로, 해나정 학생은 보조교사로 수고하고 있으며 권문상 IC KIDZ 부장 집사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벨리는 애니 윤, 에스더 고, 크리스 매기 집사, 김신의 학생이 교사로, 에스더 김, 조이스 리 학생은 보조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인원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특히 세리토스 채플은 교사당 7~8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역동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상 버거움이 절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아이들의 참여도나 봉사자들의 열정에 견주어 여러모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형편에도 즐거워하는 아이들에게 더 잘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심지어 세리토스 채플은 장소를 빌려쓰는 입장이라 바닥에 줄 하나도 마음대로 그리지 못해 끈으로 구역을 나눠 게임을 진행해 보는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육체적, 영적 중무장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군인을 만들자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제대로 살리려면 여러가지의 지원이 필요하다. 심지어 해마다 펼쳐지는 각 교회대항전에도 이번엔 참가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아이들은 분명 우리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하는 내 아이들이다. 금이야 옥이야 내 아이를 챙기듯 우리교회 다음세대를 위해 전교인이 함께 하길 간절히 바란다.

| 채은영 기자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1. 재료 <4-6인분>

<4-6인분> 식용유 1/4 컵, 꿀 1/3 컵, 간장 1/3 컵, 백 포도주 2 큰술, 후추가루 1/4 작은술, 닭 가슴살(사방1 인치 크기) 8조각, 통 마늘 2개(껍

닭고기 야채 꼬치구이 Chicken Vegetable Kabobs

박창신 기자

질을 벗겨 꼬치에 끼울 수 있도록 준비), 양파 작은 것으로 5개 (2 인치 크기로 잘라 준비), 빨간 피망 2개 (2 인치 크기로 잘라 준비), 쇠 꼬치

2. 만드는 법

- 1) 큰 그릇에 식용유, 꿀, 간장, 백 포도주, 후추 가루를 넣고 잘 섞어준다.
- 2) 꼬치를 구울 때 쓸 소량의 위의 섞음장을 남겨 놓는다.
- 3) 1번에 닭고기, 마늘, 양파, 피망을 넣고 섞어서 냉장고에서 2시간이상 재운뒤 조리하기 20분 전 냉장고에서 꺼내 조리시 고기의 온도가

실온이 되도록 한다.

- 4) 그릴을 화씨 450 도로 예열한다.
- 5) 쇠꼬치에 닭고기와 야채를 번갈아가며 꽂아 놓는다.
- 6) 고기와 야채가 그릴에 붙는 것을 막기위해 그릴이 뜨거울 때 식용유를 살짝 바른 후 꼬치를 올려 13- 17분 동안, 2 번의 섞음장을 간 간이 발라주며 닭고기의 육즙이 맑게 흐를 때까지 뒤집어 가며 굽는다.

*잡곡 밥이나 영양 빵과 그린 샐러드와 함께 상에 올리시면 좋은 건강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역자를 소개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가 넘쳐요

신지원 간사 (행정)



안녕하세요. 주안예교회 행정담당 신지원간사입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시간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나눔을 통해 주안예교회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기도 밑에서 자라신 부모님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릴적부터 신앙에 관해 열심이었던 부모님을 따라 구역예배, 수요일예배, 대심방, 식당봉사, 바자회 등등 모든 교회 일에 따라다니며 대부분의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로 접어들면서 온실의 화초처럼 항상 좋은 것들로만 채워지던 환경이 어려움으로 바뀌면서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1여년을 김치찌개 하나로만 버텨야 했었고, 부모님을 따라서 밤에 청소를 다니면서도 좋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것

에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제가 세상적인 친구들과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과 교회에서의 두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오기까지 기다리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07년 단기선교 때 나와 제 친구의 이름을 헛갈려 친구의 기도제목을 놓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 전도사님과 인연으로 청년부에서 목자와 간사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생각치도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 시간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지만,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일들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달란트대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다독여 주시고,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혹 저의 부족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편함이 생겨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에 감사하며 보여주신 성도님들의 사랑에 더 부응하여 지금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삶에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고 믿음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을 고민하며 기쁨으로 한 분 한 분을 섬기겠습니다.

과수원 가꾸기

여름철에 수확하는 풋고추, 오이, 호박, 상추 같은 채소 모종을 심기에 좋은 때입니다. 그 중 토마토는 키우기 쉽고 수확 포드로 분류될만큼 영양의 보고인데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가면 의사들의 얼굴이 파래진



한국학교 아이들이 토마토 심는 법을 배우고 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 가면...

나형철 장로 (업타운 너서리 운영)

다”는 서양 속담이 이를 단적으로 표현합니다(토마토 철이 되어 사람들이 토마토를 많이 먹게 되면 건강이 좋아져 병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어 의사들이 긴장한다는 뜻).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C, E, 칼리성분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기 계통 암이나 유방암, 전립선 암 등을 예방하는데 좋고 특히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줌으로 남성분들이 자주 섭취하기를 권장 받는 식품입니다. 또 고혈압인 분이나 당뇨 증세가 있는 분들도 증세를 좋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1. 토마토 기르기

- 물이 잘 빠지는 곳에 아멘드먼트 거름흙 발 흙을 반반씩 섞은 흙에 심는다.
- 하루 종일 햇볕이 드는 곳에 모종을 깊게 심는다.
- 심은 후 물을 넉넉히 주고 어릴 때는 2일에 한 번 1피트 이상 되면 3일에 한번씩 준다. 뿌리까지 물이 스며들게 많이 준다.
- 병충해에 강한 품종(첵피언, 허스키 레드, 셀러브리티, 베타보이)을 심는 것이 좋다.

● 잎과 줄기 사이에 나오는 결실을 따 주고 강한 1~2줄기만 키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안 열리는 현상을 막아준다.

- 첫번째 꽃이 필 때에 닭 분뇨 거름, 열매 채소용 비료를 준다. 그 후 3~4주에 한번씩 같은 걸음을 준다.
- 키가 1피트 이상 자라면 받침대를 해 주어 쓰러지지 않게 해 준다.
- 꽃이 핀 후에 아침 이슬이 마른 다음 손으로 꽃 부분을 한두번 가볍게 쓸어 주면 열매를 잘 맺는다.
- 물이 부족하거나 기온이 55F 이하나 105F 이상이면 열매가 잘 안달린다.

2. 권장 할만한 토마토 품종

- 방울 토마토: 대추 토마토, 스위트 100
- 비후스테이크: 맛도 좋고 크기 커서 수확량이 많음
- 롱 키퍼스: 크기가 크지 않고 오렌지 빛이며 6개월까지 보관 가능.





전교인
기도회



■ 주안예술포럼 인도자 간증

말씀에 빠지고
삶을 나누고

“카톡” <주안예술포럼 인도자 감사회 공지> 소리와 함께 날아온 문자... 또 간증문을 써야 하는구나.. 베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표현이 힘들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떤 일인지...



김규실 집사

2015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결단한 부분이 있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꼭 빠져서 살아보자... 노랑 구슬 중에 빨강 구슬이 되어 하나님 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선을 그분께만 고정하고 하나님 계신 하늘을 호흡하며 살아야 한다고 목사님께 배웠던 말씀을 생각하며 평사원에서 진행하는 주안예빛, 주안예말씀, 주안예삶 인도까지 모든 스케줄에 동참하기로 결단을 하였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나에게 대상포진으로 공격해 왔다. 좀 걱정은 되었으나 모든 것 감당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 부탁드리고 진행해 가는 중 권사님을 통해 준비된 약을 공급받고 일주일 정도 고생하고 완쾌되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체험으로 느끼며 감사함을 고백해 본다.

처음 우리팀 멤버 6명을 배정 받았지만 두분이 OT에 참석 못하셔서 4명과 함께 주안예삶 2권을 하는 동안 서로 먼발치에서 보고 눈인사만 하는 집사님들과 아주 가까워졌고 다 아는 내용의 공부 같으나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는 말씀들을 다시 되새김질 해보며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새삼 느끼게 된다. 성경읽는 법, 기도하는 법, 사단을 이기고 옛 사람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 결국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6주의 시간이 왜 이리도 빠르게 지나가는지... 팀 멤버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마지막 식사하며 재담을 나누었는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삶을 나누고 정말 세상에서 등경 위에 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한다.

여타 일반 교회에서 해보지 못한 감사회에서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심은 아무 쪽에도 쓸모 없는 조각목과 같은 자를 깎으시고 다음으시고 이모저모 부족한 것을 고치시고 이으셔서 리더로 써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하였습니다.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해 본다.

■ 주안예술포럼 수료자 간증

‘교회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먼저 저희들에게 “주안예교회”를 허락하시고, 최혁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 계속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처음 대면하여 인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라고 칭찬을 하자, 최혁 목사님께서 당시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후---하며, 제 마음에 닿는 당부랄까 바람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주안예교회” 2년을 맞이하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교회를 통해 제 삶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은혜를 깨닫는 부분도 많지만, 이에 더해 교회에서 주어지는 말씀 양육 시간들 또한 절실히 필요했음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켜 보면, 형식적 “교회 생활”은 있었지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필요한 부서에서 봉사과 섬김으로 분주한 모습들은 있었지만, “신령과 진정없이 외식을 했구나!”는 생각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풍년을 공부하는 기간동안은 내내 시간에 많이 쫓겼습니다. 주중에 매일 최소 1시간 정도는 할애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거룩한 독서의 소감문을 써야 하는 부분과 공부한 내용에 대한 소감문을 작성하는 공부는, 그것도 아침시간에 해야 하므로 습관되지 않은 부분들이라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확실히 받은 것입니다. 모든예배에 참여하고, 구역예배준비하고, 성가대 연습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각종 봉사부서에서의 모임, 섬김의 자리들, 더구나 힐링 캠프며, 이렇게 공부를 마친 후의 발표모임 등등을 통해, 우리의 삶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과 교회 일을 꾸준히 기억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힘들의 훈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들의 훈련이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임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참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게 변화시켜주기에 이 성령님의 윤행하심을 인지하며 감사하고 있

습니다.

이제 간증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그제 목요일 저녁 9시에 인도자에게서 토요일 날 간증해 줄 것을 부탁 받았습시다. 순간적으로 “안되는데요!”라는 말이 먼저 나온 것입니다. 토요일은 12시, 3시, 5시에 각각 교회와 관련된 개인적 일과 비즈니스에 따른 스케줄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인도자는 재차 당부를 해주었지만, 교회차원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아니므로 “누구 한 사람 간증 안했다”고 문제가 될 것도 없을 것 같아 뒤로 뺀 것이었습니다.



김경배 집사

그리고 20분 후에 저는 인도자에게 카톡으로 “제가 간증을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일도 중요하고, 또 사진에 만들어진 스케줄일지라도, 무엇이 우선 순위인가?를 생각한 거죠! 분명히 “말씀은 들음에서 납니다”는 말씀! 맞습니다! 교회생활 할 때는 “모임날짜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순서를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전에 알려주면 어떻게 해!”하고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더구나 교우들 앞에 나서서, “뭘 발표하고” 하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스스로 자유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지금은, 그런데!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이 뭔가를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순종, 청지기, 하나님의 인도 등등..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교회에서 필요해 부르는 모임인데..”에 생각이 미치자.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인도자 집사님에게 사과하며 참석을 통보하니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조금씩 변하고 있고, 이 변화들은 교회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말씀 양육훈련을 통해 깨우쳐지고 배워진 변화입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교육훈련에 참여할 것과,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과, 평사원 사역자님들에게, 위로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 / 카페 브니엘 임아라 간사

■ 추천도서

사랑 듬뿍 · 향기 듬뿍 담아

성도들의 반가운 만남과 대화가 있는 곳, 스타벅스보다 맛있는 커피와 빵이 있는 곳,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밝은 웃음이 있는 곳, 친교관에 자리한 카페 “브니엘” 이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권사님들의 커피를 준비하고 있던 차분하고 잔잔한 미소의 카페를 책임지고 있는 임아라 간사를 만났다.

Q. ‘브니엘’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계기와 과정이 있었나요?

밸리채플의 많은 어른들께서 예배 후에 가벼운 커피 한잔과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늦은 시간에도 교회 주변의 맥도널드나 스타벅스로 이동하시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교회 내부에 작은 카페를 만들어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 편하고 자유롭게 교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여건과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후에 카페의 오픈이 결정 되었고 카페의 위치와 인테리어, 메뉴 등등 4달 정도의 준비 시간을 거쳐 3월 1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게 큰 부담감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버지의 조건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한분 한분을 귀히 여기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지, 교회에 폐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이 하루하루 더해져 갔고 결국 하나님 앞에



Q. 카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카페 브니엘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따뜻한 커피와 함께 성도님들의 마음도 따뜻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혹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는 카페를 통하여 성도님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품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혼란 이야기만 나누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의 회복과 친밀함이 형성되어 돌아가는 발걸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 라는 뜻입니다.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카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카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결단하셨나요?

카페를 준비하면서 또 오픈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카페에 오시는 한분 한분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의 사랑을 흘려 보내고, 뿐만 아니라 저도 성도님들을 통하여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임간사의 하나님 사랑과 헌신으로 카페 브니엘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듬뿍바른 빵과 믿음향기의 커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감동을 맛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 공태용 기자 |

< 오픈 시간 >

월, 화, 목, 토: 6am~9:30am / 수: 6am~9am
금: 6am~9:30am, 5:30pm~7:30pm,
예배 후~10:30pm
주일: 9:15am~2: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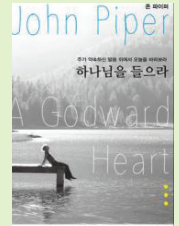
Q.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카페사역이라는 자리로 부르신 것은 저에

< 하나님을 들으라 >

A Godward Heart
저자: 존 파이퍼(John Piper)

열정적인 복음주의 설교자 존 파이퍼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48편의 묵상집. 따뜻하면서도 신학적인 깊이가 담긴 글쓰기를 통해, 바로 ‘성경’이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리얼한 목소리’임을 일깨워 준다.



대중매체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통한 SNS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의반타의반 수많은 소식을 듣는다. 그러면서 넘쳐나는 소리들에 쉽게 동요하고,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분노하며, 쉽게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것이 요즘 우리네 모습이다. 그 뿐만 아니라 더 자극적인 불거리, 들을 거리를 찾아 틈만 나면 인터넷이나 SNS의 바다를 헤매느라 노상 분주하며, 마음과 생각이 산만하다.

존 파이퍼는 날마다 이 소란한 세상에서 분투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모든 소리에 앞서 하나님 목소리를 먼저 듣는 말씀 묵상의 습관을 제시한다. 이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방향을 돌리는 실제적인 작업이다.

John Piper “기독교 회락주의자”, “탁월한 기쁨의 신학자”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존 파이퍼는 미국 처치 리포트가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중 한 명이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큰 영향을 받았고,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전하고 있다. 존 파이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기뻐하며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정으로 살도록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깨닫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 것을 촉구한다.

휘튼 칼리지(Wheaton College)와 풀러 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고 뮌히 대학(University of Munich)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베헤신학대학(Bethel College)에서 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연구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God's Passion for His Glory) 미국 ECPA 금메달을 수상한 바 있다. 1980년부터는 미국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목사로 섬겼다. (출처: yes24.com)

■ 성지순례기

성경의 땅, 이스라엘



사랑하는 주안예교회 성도 여러분!
한 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지순례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성지순례자들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땅을 밟으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장소들, 예수님의 그 숨결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면서 그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순례의 참 의미를 느끼기 보다는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단지 곳곳에 세워진 가상의 기념교회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빼듯한 일정에 돌아서기에 급급하여 성지순례의 참 의미를 놓치고 돌아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성지순례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 성지순례를 주관하는 곳을 알아보고 있던 차에 작년 12월 초에 친구 목사의 소개로 애틀란타에 있는 성서지리연구원을 알게 되었고 그 곳에서 주최하는 이스라엘 성경현장학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97년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이번에 성서지리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이스라엘 성경현장학습은 차원이 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서지리역사학자이면서 성서지리연구원 원장이신 이주섭 목사님은 이스라엘에서 11년을 거주하면서 히브리대학과 예루살렘대학에서 고대 근동의 역사와 역사 지리를 공부하신 목사님이시고 그 목사님이 직접 이스라엘에서 안내해 주시면서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학문적으로 자세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함께하는 성지순례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함께 갈 것을 권유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박 11일의 공식적인 일정이 있고 그 후에 과외로 더 학습하기를 원하는 목사님들은 8일을 더 머무르면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 좀 무리하게 18박 19일의 일정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불과 남한의 4.5분의 1 정도의 면적에 불과하지만 그 곳에 성경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일정도 너무 짧은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략 BC 1920여년 경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이후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후 사도행전의 기록들, 그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공부하는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일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무척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땅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해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리적 여건과 기후와 토양, 그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의 생활과 풍습, 유대인의 문화를 이해해야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풍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왜 성경에서는 강조하는지, 들에 핀 백합화는 어떤 꽃인지, 겨자씨의 비유는, 예수님의 감람산 겹세마네의 기도도는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도저히 이곳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책을 통하여 단편적인 지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의 땅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때 성경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알고 받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 관계상 다음호에는 성지에서 유대광야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내용과 구체적으로 성지를 학습해야 할 이유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강영웅 목사

주안예교우

비즈니스 소개

coway

- * Bidet
- * Water Purifier
- * Air Purifier
- * Water Softener

황은숙 (Deborah)
Pro HP
COWAY USA INC.
Cell : (949) 874-8825
Fax : (714) 739-4354
7800 Commonwealth Ave. #201
Buena Park, CA 90621
www.coway-usa.com

이 사 라
Suk Lee
US 9636650
Franchise Consultant

NU SKIN.
THE DIFFERENCE DEMONSTRATED™

PHARMANEX™
A Natural HealthCare Company

3700 Wilshire Blvd, #265 L.A.CA
Cell : 818.648.1224
E-mail : sarah27814@gmail.com

May Queen

Helen
원장
Cell: 562.315.3090

BUS. HOURS: 9:00am - 7:00pm
전화예약 바랍니다.

Tel: 714.228.9001
6772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Flower Factory / Uptown Nursery

과일나무
실내 식물
정원 나무 • 정원 공사

Tel : 213.382.9777 • 213.389.1388
E-mail: oakfastfoto@hanmail.net
294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 문학과 삶

선택에 포기, 인생을 관조하는 소박함이...

로버트 프로스트는 많은 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인이다. 이해가 쉬워서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그의 시에 감도는 인생의 달관, 미국의 그 대륙의 풍모와도 같은 광막하고 고담스러운 관조가 오히려 큰 매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이 시에서는 노경에 든 시인의 커다란 관조가 더욱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

한 사람이 가을날 숲 속을 걷다 두 갈래 길을 마주했다가 고민 끝에 한길을 택했고, 이 때문에 이후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누구나 인생의 황혼이면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시. 그래서인지 혹자는 이 시를 “두갈래 길”이라고도 번역을 한다.

인생에 대한 관조나 지나온 삶을 되돌아 보는 마음이 어디 이 시인 뿐이라. 인생에 있어 선택의 중요성과, 결코 그 선택의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다른 기회를 포기함에 대한 회한에 대해 소박하지만 인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명시이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20세기 미국 시단에서 가장 두드러진 시인으로서 1875년 3월 26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부부 교사였는데 아버지는 그가 10세 때 사망했고 그의 모친은 프로스트와 함께 고향인 매사추세츠 주로 돌아와 그의 친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로렌스에 정착했다. 한번도 대학을 끝마치지 못하고 결혼 후 시골 학교에서 교편을 잡기도 하고 구두를 만들어도 보았으며 결국 1900년에는 뉴햄프셔 주의 데리라는 곳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11년 후에 그는 농사를 그만두고 가족을 이끌고 영국으로 건너가 시를 쓰면서 문인들 사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유럽에서 제 1차 세계 대전이 터지자 그는 가족을 데리고 다시 뉴햄프셔 주의 프랑코니아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보스턴의 북쪽』의

로버트 프로스트
피천득 옮김

가지 않은 길

노란 단풍숲 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걷는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으므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 날 아침 두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 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 속에도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미국관이 출판되면서 그는 갑자기 크게 명성을 얻어 시인으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1916년에는 앰허스트 대학의 주재 시인(Poet in Residence)이 되었고 이어 예일, 미시간, 더트머드, 하버드, 웨슬리 대학 등에서 시를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구수한 음성과 전원적인 그의 시는 인기를 모았고 계속하여 그는 시집을 발간하였으며 여러 차례 풀리처 상을 수상하였다. 1957년, 그가 83세 때에 그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을 포함한 여러 대학에서 명예 문학 박

사 학위를 받았고 1961년에는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작시 “모조리 바친 것” (The Gift Outright)을 낭송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의회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이라는 최고 훈장을 받았고 이어 미국 무성의 친선 사절로 소련을 방문한 다음 해인 1963년에 그의 한 인생길을 마쳤다.

무명의 농부에서 화려한 명예까지... 인생의 길, 잘났으면 잘난대로, 못났으면 못난대로 꾸준히 걸어가는 인생의 길, 누구에게나 펼쳐진 그 인생길을 나이가 들어 지그시 눈을 감고 되돌아보는 후련한 체관(諦觀)이 바로 이 시한편에 그려져 있다.

‘간 길’도 아니고, ‘가지 못한 길’도 아니고, ‘가지 않은 길’이라 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을 이만큼쯤 걷고 난 후에 우리는 그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을 어떤 마음으로 뒤돌아 보고있는가... 이 시에서 길은 인생이고 인생은 매 순간 선택으로 비롯된 운명이었다. 안타깝게도 매번 우리는 두 길을 모두 선택할 수 없었고 똑같은 이유로 시간을 거스러 갈 수도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건 우리는 한 길을 선택해야 했고 바로 그 선택으로 인해 내 삶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즉 선택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간다. 아! 인생이여! 어느 길을 선택했던 어느 길을 포기했던 나이가 들면 내 길의 선택에 대해 후회나 아쉬움, 혹은 회한 같은 것들은 이미 강물에 흘러간 나뭇잎처럼 가슴에서 멀리 두고 바라보는 것이 멋지다. 나에게도 ‘노란 단풍 숲 사이, 가지 않은 또 하나의 길이 있었노라’고 로버트 프로스트를 읊으면서...



서미숙 기자

성도님들의 사업에 도움을 드리고 교우 상호간 서로 돕기를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체 광고란을 마련했습니다. 광고비는 6개월 단위 \$1500이며 광고수익은 선교 구제헌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 (323) 810-9853, icccnews123@gmail.com

사업체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Sang B. Kwon 권 상복
sangbkwon@gmail.com
CA Ins. Lic #0H59734



Certified
Insurance
Agent
공인 에이전트

Cell. 213.713.9191

- 생명보험
- 은퇴연금
- 주택보험
- 건강보험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PHOTOGRAPHER
SCOTT KIM
WWW.SCOTTKIMSTUDIO.COM
213.810.4000

MEMBER OF HYL PRODUCTION
WWW.HYLPRO.COM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 Lift your eyes and look to heaven

6.25라는 참혹한 전쟁이 나라의 강도를 휩쓸고 있을 때 탄생한 찬송가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않으면 빛을 잃고 어둠밖에 없는 세상을 견뎌낼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탄식만 하고 있을 수 없기에 작사자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환한 빛이 우리를 비춘다고 합니다. 1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메이며~” 라고 절망으로 통곡 하지만 3절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라며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빛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는 하늘 뜻을 전합니다.

이 찬송가를 쓴 석진영(1926-2005)은 문서전도 활동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로 활약한 여류 시인입니다. 표기된 작사 연대 1952년은 동란 중이었으며 시인의 나이 26세로 울산에서 중학교 교편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전쟁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국가 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망과 공포와 혼돈에 빠져있는 피난민들을 보면서 썼다고 합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 피난살이를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각성하고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호소의 뜻도 가사에서 엿보입니다. 서울에서 출생, 서울대 사대국문과를 졸업한 후 미국에 건너가 ‘캘리포니아 루터교 성경학교’와 ‘라이프 성서대학’



을 졸업했습니다. 미국 LA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전령’ (The Christian Ambassador)이라는 기독교 간행물도 발행하며 교포사회에서 성경 연구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했다고 전해 집니다. ‘상우’ (尙友), ‘일광’ (一光), ‘창문을 열고’ 등 여러권의 시집과 50여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찬송가에는 이 찬송 단 한 편만 실려 있습니다.

작곡자인 박재훈(1922~)은 평양 요안학교를 다니며 음악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동경음악학교에서 구두회 장로와 수학했고 해방 후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일본 군가만 부르는 것이 안타까워 많은 동요를 작곡했는데 우리 세대가 초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추억의 애창동요 ‘엄마 엄마 이리와 요것 보세요’ ‘산골짜에 다람쥐 아기 다람쥐’ ‘송이송이 눈꽃송이’, ‘어머님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같은 유명한 동요들이 모두 그의 작품입니다. 20대부터 찬송가를 작곡하기 시작해

서 23세 때 ‘어서 돌아 오요’ (527장)를 작곡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30세 때인 1952년에 작곡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석진영이 그에게 장문의 편지와 함께 이 시를 보내왔다고 회고합니다. “당시 부산은 여기저기서 몰려온 피란민들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석 선생은 이렇게 어려울 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나타내고 탄식하는 이들에게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역시 똑같은 느낌으로 이 곡을 썼습니다.”

박재훈 작곡가는 그 후 미국 ‘웨스트민스터 합창대학’에서 공부하였고 귀국하여 한양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며 영락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였습니다. 그 후 미국을 거쳐 1979년부터 캐나다에 살면서 60세에 목사안수를 받고 토론토에서 ‘큰빛장로교회’를 개척하여 큰 교회로 성장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으로는 ‘눈을 들어 하늘보라’, ‘어서 돌아오요’, 외에도 ‘산마다 불이 탄다’ (592), ‘지금까지 지내온 것’ (301장) 등이 있으며, 어린이 찬송가, 성가 합창곡, 독창곡 등 많은 곡들과 오페라 ‘에스터’와 칸타타 여러 곡이 있습니다. 설교 때 예화로 소개된 손양원 목사를 기리는 오페라 대작 ‘손양원’도 그의 작품입니다.



서세건 기자

“주안에” 2015년 4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공태용, 김경일, 김현철, 라형철, 박창신 서미숙, 서세건, 오철호, 이현주, 조성운, 조용대, 조이 메기, 채은영, 최민애, Annie Yun (기자)

안동윤, 브라이언 조, 정인섭, 김다슬 (사진) | 편집디자인: 김은영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세리토스채플 / 오전 9:30, 11:30
밸리채플 / 오전 8:00, 9:45

영성 집회

목요영성집회 / 저녁 7:45 세리토스채플
금요영성집회 / 저녁 7:45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 새벽 5:30(월-금), 6:00(토)
세리토스채플 / 새벽 5:30 비전채플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